

Elaine Phillips 박사, 에스더, 강의 2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에스더서 본문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또한 히브리어를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지적할 것입니다. 시작할 때, 1장이 의도적으로 왕에 대한 거창한 소개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처음에 두 번 나옵니다.

이는 페르시아 궁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쌍방의 지속적인 행렬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문체적 터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 명예와 왕족은 장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름, 직위, 직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는 실제로 이 본문이 페르시아 군주제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재미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명예에 대한 주요 용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르(yakar)입니다. 이 단어의 형용사 형태는 귀중한, 값비싼, 희귀한,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겁거나 무겁다는 뜻의 관련 형용사 kaved 도 사용됩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동족인 kavo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관련된 명사 형태는 간을 의미하며, 간은 감정의 자리이자 자아를 대표하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왕족과 반복적으로 연결된 명예는 실제, 지위, 영광의 측면이 모두 자아에 얽혀 얽혀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궁정인 공공 무대에서는 지위에 대한 존중, 화려함에 대한 경외심, 물질에 대한 의존 등이 모두 특정 개인의 명성을 높입니다. 이제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세르크세스 시대, 즉 히브리어로 아하수어로, 아하스베로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도에서 쿠시까지 127개 지역을 통치한 크세르크세스 가문입니다. 히브리어 이야기는 vayhi 로 시작됩니다. 비메이, 그 일은 롯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구이기도 한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로 히브리어로 이 용어 vayhi는 여러

역사적 성경 본문을 소개하며, 이것이 역사로 읽혀지도록 의도되었음을 다시금 암시합니다.

왕의 이름은 Achashverosh이며 일부 영어 번역에서는 Ahasuerus로 번역됩니다. 이는 페르시아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이며 Xerxes는 그리스어로 음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다른 두 이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인도와 구시는 제국의 남동쪽과 남서쪽 모퉁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평행 표현은 지정학적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표준 명칭이다. 이 경우 이러한 명칭은 알려진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우주 주권을 확립하는 또 다른 요소이므로 크세르크세스의 최고의 영예가 됩니다.

주의 수는 127개로 많은 회의적인 논평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 치하의 페르시아 제국에 총독이 20명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메디나 지방은 satrapy보다 작은 실체였습니다.

이는 특히 두 용어를 모두 언급하는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광대한 제국에 대한 페르시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독 대신 지방의 수를 언급한 것이 더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선전 엔진과 별도로,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127개 지방을 통치하는 왕을 조롱하기 위한 또 다른 메커니즘이었으나 그의 궁전 정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2절, 그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도성 수산에서 왕좌에 앉아 다스리니라. 사실 고대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4개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수사의 성채인 비라 와 도시 자체 사이에 일관된 구별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모든 귀족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사 지도자들과 각 지방의 방백들과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연회라는 용어는 미슈테(mishte) 인데, 이는 마시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특징적으로, 왕실의 축하 행사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이 분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역사서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초점은 음주였으며, 1장의 중요한 세부 사항도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왕의 승인으로 인해 상당히 과도했습니다. 이 구절의 끝 부분에서 설명을 특징짓는 단어 쌍은 점점 더 넓어지는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인인 귀족과 관리들은 지방 관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멀리 떨어진 왕자들과 지방 귀족들과 합류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가 180일 동안 그 나라의 부와 위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마도 그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었던 유명 인사들의 전체 측근들 앞에서 그의 영광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동사 쌍, 이중 구조 및 기타 형태의 중복은 이 왕국의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강조합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여러 날, 실제로는 18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그 시간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180일 동안 모든 왕자, 하인, 군인, 외교관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 공격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려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룹이 연속으로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배경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히브리어 본문이 시작되는 크세르크세스에 대한 이 장대한 서문에 앞서 칠십인역은 역사적 맥락을 수정하고 그 이야기를 뚜렷한 신학적 틀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 아닥사스다를 페르시아 군주로 명명한 다음 모르드개를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던 베냐민 사람으로 식별합니다. 그러나 칠십인역 서문의 주요 초점은 모르드개가 끔찍한 환난 속에서 싸울 준비가 된 두 용을 본 묵시적인 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꿈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작은 시내가 큰 강이 되었는데, 특히 에스더를 가리킨다.

빛이 일어나고 낮은 자들이 높아지니라. 청중과 모르드개는 그것이 실제로 해석되는 칠십인역이 끝날 때까지 이 꿈의 의미를 숙고해야 합니다. 한편, 칠십인역에서도 이 시점에서 모르드개는 왕의 두 내시가 자신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이 사실을 아닥사스다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조사되었고 내시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모르드개는 법정에서 끌려와 공직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히브리어 본문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또 다른 주요 전환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만이 두 내시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기로 결정하여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소 모호한 음모의 측면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돌아갑니다. 이 잔치를 마친 후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왕궁 안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별도의 7일 잔치는 이전 사업이 주로 왕이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실상 반년 동안 관광객을 맞이해 온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표한 것인지도 모른다. 5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구절 끝에 있는 연속적인 구성 명사는 독자를 한 단계씩 내부로 인도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왕의 누각 정원 뜰에 있다고 읽습니다.

구문은 이 액세스가 실제로 특별한 경우였음을 암시합니다. 6절로 넘어가면, 내부 공간에 대한 묘사는 상상력이 풍부한 눈을 위한 풍성한 향연을 제공합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기둥, 휘장, 쪽모이 세공 마루 바닥은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는 소파의 호화로운 배경이었습니다.

긴 목록에 담긴 단어들은 이국적이며, 재료의 정체성도 어려워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히브리어의 거친 구문은 경이로움, 풍요로움에 대한 절대적인 경이로움을 전달합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쌍방은 거만한 페르시아 궁정을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진청색 또는 보라색 물질에 해당하는 단어인 테힐릿(tehillit)은 출애굽기와 역대하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과 성전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여기에서 우주 왕의 거처와 이 왕 크세르크세스 사이의 미묘한 대조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포도주는 각각 다른 금잔에 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관대함에 걸맞게 왕의 포도주가 풍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손님 각자는 자기 방식대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술 맡은 관리인에게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시중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음주 과정은 사실상 제국과 그 통치자 모두의 실제 성격을 축소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은 법으로 통제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dat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은 왕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고 읽힌다. 이것은 하만이 자신이 원하는 법령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9절.

와스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느니라. 여기서 서술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잔치와 병행하여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진술의 단순함과 왕의 잔치에 대한 장황한 묘사 사이의 대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7일이 지나자 왕의 상태는 포도주로 인해 뚜렷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기분이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은 토브레브(tov lev)이며, 기분 좋은 것부터 완전히 취한 것까지 스펙트럼 어디에서나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독이 실제로 임박한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경적 맥락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16장과 사무엘상 25장은 그 두 가지 예입니다. 게다가 이 절에서 숫자 7은 이야기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 명의 내시가 데려온 것은 왕이 감탄과 명예를 누리는 날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또 다른 소유물인 왕비를 과시하려 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도하게 확장된 퍼레이드에서 자기 확대의 완벽한 행위였습니다. 내시들은 와스디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백성과 방백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와스디를 가리켜 보이라 하였느니라 4절에서도 왕의 소유를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와스디는 왕의 왕관을 쓰고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듣고 랍비 주석가들은 그것이 그녀가 착용할 전부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가 오기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왕에게 있어서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일곱 내시를 통한 명령은 이 법정의 모든 것이 과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의례에 따른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12절을 보면 시종들이 왕의 명령을 전하자 와스디 왕후는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의 첫 번째 단어는 거절입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여 불타올랐습니다. 본문에는 와스디가 거절한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의 자료에 따라 술에 취한 많은 남자들 앞에서 옷을 입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녀가 싫어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절 끝에 있는 왕의 진노도 이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소리는 그가 분노로 터져나오는 소리와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왕은 올바른 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없어 현자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질문, 즉 13절과 14절은 왕이 그의 보좌관들에게 보내는 의사 결정

기관과 정부 구조에 대한 정교한 괄호 설명으로 중단됩니다. 법원 전체의 과도하게 규제되고 우스꽝스러운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잭.

이 현자들, 하하 밈은 법률 전문가들 중 출신이고, 왕 앞에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국의 첫 자리에 앉았습니다. . 그런데 그들의 전문 지식의 정확한 성격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대를 아는 자들아 같은 표현이 역대상 12장 33절에도 잇사갈 지파 사람들에 관하여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헤브론에 온 사람들 중에 있더라.

여기에는 시대를 아는 것과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자들은 궁정의 전통적인 기관이었으며 이 목록에 있는 몇몇 이름은 페르세폴리스 서판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중세 유대인 주석가인 이븐 에즈라(Ibn Ezra)는 시대를 아는 사람은 점성술사이며, 이 경우의 법은 하늘의 법칙을 의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텍스트 및 텍스트 외 지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그들의 지혜도 왕과 함께 포도주로 흐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시대를 알고 여성 봉기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 모르드개가 밝혀낸 음모를 놓쳤습니다.

1장 10절에 나열된 목사들과 내시의 이름은 역순으로 읽어보면 비슷하다. 이러한 반전 패턴에는 여러 가지 일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서사를 특징짓는 반전을 또 다른 관점에서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다. 15절에서 왕은 반항적인 아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었고, 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반응을 기대했는지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있는 어조를 더할 뿐입니다.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무무간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악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귀족과 귀족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 여왕의 행위는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며 이르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와스디를 그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였으나 오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바로 오늘, 왕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이 왕비의 일을 들은 모든 귀인에게 대답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무례함과 불화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와스디는 공개적으로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행동은 남성의 명예와 공직 및 기타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emucan의 연설입니다.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움직였고, 왕에게만 초점을 맞춘 굴욕의 연설이 모든 남자를 포함하도록, 왕과 가까운 사람이자 그의 명예를 책임지는 사람의 눈부신 책략, 좋은 스펀이었습니다.

이 미약한 명예를 쥐고 있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잃을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메무칸의 어조는 거의 공포에 가까웠는데, 아마도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귀족, 모든 백성, 모든 지방.

글쎄요, 와스디의 잔치를 위해 모인 여자들은 아마도 이 두려운 뉴스 속보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구절 자체는 모든 사람이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부정사 구문의 접미사는 남성 복수형입니다.

게다가 와스디의 범죄는 부당함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ava*는 보통 명사 형태인 *avon* 과 관련이 있으며, 가장 자주 죄로 번역됩니다. Memucan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귀족 여성들은 여왕의 충격적인 행동을 듣고 그것을 뻔뻔스럽게 자신의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문화의 구조 자체에 명예가 엮여 있기 때문에 남편은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18절)은 이전 진술을 중복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계급 구별을 나타내는 미묘한 지표입니다. 귀족 여성도 남편을 수치스럽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주가 명백히 과도한 분노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대중의 불복종으로 인해 공개적인 굴욕을 당할 가능성은 실제로 분노의 밑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된 일이기도 합니다. 19절, 왕의 명령이 온 나라에 반포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

비인격적인 정치적, 법적 기구를 미묘하게 나타내는 수동 동사의 반복 패턴은 이 왕실 법령의 공포와 함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조서를 왕에게서 내려야 했고, 그것은 바사와 메대 사람들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므무간의 조언은 와스디 자신이 잔치에 왕 앞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영구적이고 공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래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녀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가 더 이상 여왕 와스디로 불리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지위는 므무칸과 왕과 나머지 귀족들이 가장 바라는 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므무간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는 절하고 굽는 행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법령의 성격과 의미에 변화가 있습니다. 남성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국의 모든 여성들이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령은 와스디를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남편에게 존경심을 표하도록 강요하여 므무칸의 실제 우려를 해결하려고 헛되이 시도했습니다.

Memucan의 표현에서는 적절한 계층 구조와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동사의 또 다른 수동형인 이 말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21장과 22장을 읽고 왕과 귀족들이 이 말을 좋게 여기므로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하나라 그는 왕국의 각 지역에, 각 지방에 그 문자로, 각 민족에게 그 언어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더 문자 그대로의 다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집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NIV는 말하는 주제를 모든 사람에게서 각 장소에 도달할 이전에 언급된 파견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그는 왕국의 각 지역, 각 도에 그 문자와 각 민족에게

그 언어로 파견을 보내어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 집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읽는 것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과 24절에 묘사된 하위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통혼으로 인해 가족들이 히브리어 대신 이방인 어머니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통혼과 언어에 존재하는 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정치적 실체인 메디나와 종족 집단을 위한 언어인 라손에 대한 글은 서사 전반에 걸친 쌍방 패턴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쌍은 보도가 실제로 포괄적이라는 문학적 표시입니다. 2장은 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법원의 과잉 행위와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될 암울한 이야기 사이의 중요한 전환입니다.

과잉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변화가 곧 다가오고 있으며 이 장 이후에는 더 이상 나쁜 것이 없습니다. 2장은 히브리어 이야기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이 일들 뒤에 시작됩니다. 즉, 왕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것이 수년을 의미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을 때, 그는 세 가지를 기억했는데, 각각의 앞에는 히브리어 불변화사 et가 붙어 있어 그 독특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와스디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게 불리하게 내린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화자는 이로부터 왕의 책임을 능숙하게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모두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이름 없는 관료들이 명령한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2장 2절. 그러자 왕의 시종들이 청혼했습니다. 왕을 위해 아름답고 젊은 처녀를 찾으려 하십시오. 3절. 왕께서는 나라 각 지방에 관리들을 임명하여 이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성 수산의 후궁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여자들을 주관하는 왕의 내시 헤개의 손에 맡기고 그들에게 미용을 하게 하라. 4절. 그러면 왕의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소서. 이 조언이 왕의 마음을 끌었고 그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페르시아 궁정에 대한 풍자는 계속됩니다. 왕의 젊은 신하들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세르크세스 자신이 새로운 여왕을 선택할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절에서 반복되는 기준은 젊은 여성, 처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됩니다. 각 용어는 분야를 좁혀 앞으로 펼쳐질 고대의 미인 대회 중 하나로 설정됩니다.

처녀라는 단어인 베틀라(Betulah)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실제로 모르드개의 후견을 받는 에스더도 포함됩니다. 아름답고 젊은 처녀들을 검거하는 일은 나머지 페르시아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수행될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하렘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있는 잠재 고객을 수집하는 책임을 맡은 위원회가 각 지방에서 그들을 수집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작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모르드개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이 모두 성채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혼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지방과 모든 젊은 여성이 오는 큰 숫자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거기에 도달하면 미용 치료가 이어집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시종들은 왕의 승인을 따랐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왕의 눈에 그들의 계획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젊은 여자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지에 관해 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계획에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컨텍스트 콘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가장 원했던 것이 야심찬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거가 필요했으며, 이는 왕이 확고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의 인간 영웅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주인공들의 정체성은 주변 환경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첫 번째 장의 페르시아 궁정에 대한 설명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모두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모르드개의 혈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 도성 수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 모르드개라 이름은 야일의 아들이요 스매의 증손이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히브리어 본문의 단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수산 성에 있던 유대인 남자 이스 예후디(Ish Yehudi)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식별 표시는 그의 이름 앞에도 나타나며, 페르시아 왕과 그의 궁정의 주요 구성원에 대한 유대인의 대위법을 설정하면서 뒤따르는 갈등을 암시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유대성과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본문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대인 모르드개라고 불리며, 이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그를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족보에 관한 주요 질문은 6절의 관련 절이 족보의 마지막 이름인 기스보다는 모르드개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언급하는 경우 모르드개의 나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 매우 신중한 서술자의 경우 Kish가 추방된 개인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모르드개의 조상은 이전 세대의 가계도를 반영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씨족 이름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개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 그의 사촌을 돌보고 BC 480년대에 왕의 문에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는 아마도 520년에 야이르로 유배되어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일의 출생은 약 550년으로 추정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 스마이는 기스가 597년에 유배된 직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장에서는 사울 왕의 아버지인 기스에게 주의가 쏠려 있습니다. 9, 하만과 아각의 관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르드개와 하만 사이의 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말렉 사람들, 아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오랜 적대감이었습니다.

둘 다 왕족인 아각 왕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포로 생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모르드개, 미안하다 기스는 포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느니라. 처음 두 동사는 수동태이고, 마지막 동사는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 포로 생활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경험을 반영한 이러한 인물들을 형성했습니다.

모르드개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597년에 그들이 여호야긴이라고도 알려진 여고냐와 함께 유배된 것은 상류층 가족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6절까지에서 봅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의 내시, 귀족, 관리들은 그 물결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7절에서도 단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v'hi 로 시작됩니다. omein , he was caring for, 어린이의 후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명사.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아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르드개의 모범적인 성격을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에스더(Esther)라고도 알려진 하다사(Hassah)는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분리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숨겨졌던 그녀의 두 세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Hidden은 아마도 Esther라는 이름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중심지에서 이 이름들을 공개적으로 융합시켰습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의 복잡성은 이름 자체에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Hadassah는 머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데스(hadass) 라는 단어가 있다 . 그 이름만으로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의 예언적 상징에서 도금양은 사막의 가시를 대체할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초막절에 도금양을 들고 다녔습니다(느헤미야 8장 15절). 더 어려운 질문은 에스더의 의미, 에스더의 의미 및 이름 사이의 가능한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하닷사. 에스더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Ishtar)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적인 신분증입니다. 이것이 문학적 별명을 의도한 것이라면 에스더가 두 영역 모두에서 자신을 입증한 것처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어원은 단순히 별을 의미하는 고대 이란어 stara 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두 사람 모두 죽었음을 두 번이나 암시하고, 모르드개를 제외하면 에스더도 버림받았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사촌이었지만 모르드개의 딸로 입양할 만큼 어렸습니다. 에스더를 묘사하는 이중선은 문자 그대로 형태가 아름답고 외모가 사랑스러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즉, 그녀의 남다른 미모는 왕의 그물에 걸릴 자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8절 2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매 많은 소녀들이 도성 수산으로 끌려와 헤개의 수하에 놓이니라.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후궁을 주관하는 헤개에게 맡겨졌더라. 8절의 어조는 세 개의 수동 동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씀과 법령이 들리매 많은 처녀들이 모였는데 에스더가 데려가매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양육하고 모르드개를 양육한 과정에서 약간의 유대적 가치관이 있었다면 이는 에스더와 모르드개 모두에게 고뇌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발전에 있어서 헤게의 중요성은 이 시점에서 그의 이름이 이중으로 언급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게다가 그녀는 문자 그대로 헤게의 손에 맡겨졌다.

9절에서는 이중선의 문체 패턴을 이어가면서 에스더가 헤게의 마음에 들었고 그의 총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에만 나오는 티사크 헤세드(tisach hesed) 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관용어인 호의를 찾는 차분한 표현보다는 적극적으로 호의를 얻거나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헤게의 관심은 치료 과정과 특별한 음식을 감독하면서 그녀를 빠르게 전진시켰습니다. 마노(manot)는 히브리어로 그녀에게 가장 많은 참석을 제공하고 모두를 하렘의 가장 좋은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마노트라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에서도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생 제물을 분배한 일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선택된 일곱 명의 수행원은 헤게가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와스디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위해 예약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금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적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후궁 뜰 근처를 오가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이나 친족을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개의 명령은 다음 장에서 하만이 고안한 무대를 마련할 위험감과 이름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르드개의 모욕에 대응하여 모든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극단적인 반응은 이미 반유대주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법정에서 에스더의 복지에 대해 계속 알고자 하는 모르드개의 지속적인 관심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렘의 안뜰 앞, 밖에서 그가 매일 존재하는 것에서 나타났으며,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안녕을 확인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거기에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그가 하렘에서 유지한 인맥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곧 그 긴 과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1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과정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각 청녀는 1년 동안 준비한 후에 차례를 가졌습니다. 치료 기간이 처방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오일 마사지를 받고, 6개월 동안 향신료를 사용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향기로운 향을 선사합니다. 몰약과 성적 매력 및 사랑과의 연관성은 아가에서도 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것을 봅니다.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피부에 오일을 바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흥미로운 확증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유적지에서 화장용 버너의 예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주요한 곳은 라기스였습니다. 이것들은 향신료의 조합으로 채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옷을 더욱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성이 자신과 옷을 훈증 소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시합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왕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물론 참가자들이 소환되기를 원했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그들의 관점은 화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든 지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물건이 무엇이었을지,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과 하룻밤을 보낸 후 그 여자는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소환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남은 여생을 하렘에서 보냈고, 본질적인 과부로 전락했다는 수동태에 주목하십시오.

저녁에 여자들을 왕에게 데려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세부점입니다. 5장에서 에스더가 낮에 늦게 도착한 것은 분명 여러 면에서 일탈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르드개가 양자로 삼은 소녀 곧 그의 숙부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매 에스더는 후궁을 주관하는 왕의 내시 헤게의 제안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높은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크세르크세스 왕 제7년 열째 달, 데벳월에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두루마리의 특징적인 괄호 중 하나에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에스더의 유대인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유대인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독자는 그녀가 아비하일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왕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녀의 전략은 다른 후보자들의 전략과 대조된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의 자제력 덕분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무엇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해줄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던 헤게가 에스더에게 딱 맞는 것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유보되어 있지만 독자는 그녀가 과도한 장식 없이 비록 상당히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했다고 추측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감독하고 그녀의 상사였던 헤게와 관련하여 호의를 얻었지만, 더 공개적으로 그녀는 그녀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태도에 대한 아마도 증거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의 침실로 가는 길이 관례적으로 약간의 퍼레이드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16절에는 에스더가 끌려간 마지막

사례가 나옵니다. 설화에는 인간계에서의 그녀의 수동성이 묘사되어 있지만, 섭리적으로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4장 14절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녀는 7년 10월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와스디를 제거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전쟁터의 중간 간격과 잘 들어맞는다. 17절,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거기 히브리인은 실제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합은 다른 어떤 여인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어떤 처녀보다 그의 은총과 인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았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왕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를 방문한 모든 처녀들보다 더 은혜와 총애를 받았습니다. 대관식에 걸맞게 엄청난 궁정 축하 행사가 있었고, 제국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귀족과 관료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있었으며, 이로써 페르시아 궁정을 무해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불길한 것으로의 전환으로 이동합니다.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두 번째로 모았을 때 모르드개는 대궐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상하게 병치된 이 구절의 두 부분은 그 놀라운 성격을 문체적으로 암시합니다.

분명히 처녀들의 두 번째 집합은 모르드개가 성문에 있었던 배경을 제시하지만, 이 두 번째 집합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암시는 없습니다. 그들이 조립되기 전의 Vav 접속사는 방금 일어난 일과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축하 행사의 일부로 처녀들이 대규모로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정말로 에스더를 좋아했다면 하렘을 과도하게 확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왕을 잘 아는 신하들은 하렘을 가득 채우는 정기적인 일과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내시는 처녀를 모으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모르드개가 성문에서 발견한 두 명의 암살자가 내시였기 때문에 서술자는 이 특별한 사건을 그 발견의 배경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왕의 문에 있는 모르드개의 위치였습니다. 그곳은 행정 및 사법 활동이 발생하고 정보가 풍부하여 음모와 권력 입찰로 이어지는 권위의 중심지입니다. 그것은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경비병은 성문 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경비병은 내시였습니다. 성문에 모르드개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두 번째 처녀 모임이 하렘 구조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를 재배치하기에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20절에는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과 친족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라는 모르드개의 명령이 반복되어 어떤 위협의 불길하고 정의되지 않은 성격을 암시합니다. 모르드개는 잠재적인 위협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상 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지하의 위협에 상당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절은 모르드개가 성문 앞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처녀들이 더 많이 돌아다닐 때에는 고관들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빅탄과 데레스도 있었다. 빅탄과 테레쉬가 분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살 음모를 부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문지방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개인 방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수행원 중 한 명이 누군가를 그의 침실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결국 465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어쨌든 모르드개가 발견한 내용의 은밀한 성격은 그 문제가 모르드개에게 알려졌음을 수동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민인 그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공로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비인격적인 관료제에 따라

문제를 조사하고 두 사람을 발견하여 매달았으며 통지문을 모두 수동태로 작성했습니다. 8개 모두를 나무에 매달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에 기둥에 못 박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교수형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교수형은 사망 후 시신이 노출되어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장의 무대를 마련합니다.